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후 (4부) 2시 7시30분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4월 21일 (제686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림

유비무환(有備無患)

나는 유독 유비무환이란 말을 좋아한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누가 이 말을 모르랴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비무장지대 초병사건, 삼선전차 유독가스 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 공무원 비리 사건...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온 산물이다.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무책임과 게으름에서 야기된 일이다. 즉 점검부재 현상은 멸망의 포구다! 머리가 썩고 손발이 실족했으면 손발을 갈아 끼우고, 눈이 실족했으면 눈을 갈아 끼우고, 귀가 막혔으면 보청기를 갈아 끼워야 한다. 어찌 나태한 책임자에게 국가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작금에 일어나는 북한과의 사건도 우리는 방심해선 안 된다. 누굴 믿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특별히 각 분야에 점검할 때다. 외교, 무기, 군과 백성의 정신무장과 정보에 각을 세우고 만전에 만전을 기하자. 자신감은 실력과 힘에서 나온다. 준비 되었나 점검하자.

전쟁엔 2등이 없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란 걸 명심하자! 이번 부천집회는 미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 유비무환조치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이라고 나는 누누이 말했다. 작금의 국가적인 사태를 통해 유비무환의 정신을 고취시켜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점검은 강조할수록 좋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자.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싸우지 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保佑)하시라 우리나라 만세 십자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지난 15, 16일 부천체육관에서 거행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집회’는 체육관을 가득 채운 성도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장로님들을 앞세우고 등단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전쟁은 누가 이기든 서로에게 너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말하는 것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는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막기 위함이다. 자신감 있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 아닐까. 더 가졌고, 더 준비되었으니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잃을 것이

가끔 전쟁이 나면 좋겠다는 자들을 본다. 제 정신이 아닌 자들이다. 전쟁이 나면 남편과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하고, 아내와 딸은 참변을 당한다. 우리의 선전들은 민족상잔의 아픔을 이미 경험했기에 전쟁에 진지리를 치는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가? 전쟁의 잣대미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이 나라가 아닌가. 오늘 우리 교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집회를 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부천체육관 집회 광경(2013.4.15~16)

무 많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므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 다무면 우리가 60년 동안 피땀을 흘려 쌓아놓은 것을 다 잃는다. 방축에서 새는 물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듯,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그러니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 더욱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는 날카로운 감정 상태다. 그러므로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면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 잠언 18장 이하의 말씀이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움은

없는 자와 싸우는 자다. 잃은 것이 없는 자는 막아가지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사회, 패락이 만연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주변 국가들을 회초리 삼으셔서 때리셨다. 때 맞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이 열강의 신무기 시험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재래식 무기의 폐기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으로 하여금 일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침공하려고 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뢰를 발하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다.

우리도 통치권자를 위해(딤후2:2),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만세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리 교단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집회에 참석하여 함심으로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연합성가대의 찬양



“하느님이 보우하시라 우리나라 만세!”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을 인수해주셨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3:16)



아는 것이 없으면 오해를 낳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형용사를 찾을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처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사53:5).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청산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고, 죄와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마련,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요12:46).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우리 것을 누가 도둑질해 가는지 몰랐습니다. 왜 넘어지는지, 왜 망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원인은 귀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천사, 사람, 이렇게 세 영역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던 천사장 루시엘이

고 쓰여 있습니다. ‘범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만든 귀신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범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라고 하신 것은 그 귀신 자체가 범어리고 귀 먹은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천사, 사람 중에 육체를 입은 것은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신자(信者)와 불신자(不信者)로 나뉘집니다. 신자는 죽은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낙원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무저갱을 거쳐 지옥으로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음부라는 곳이 바로

마귀가 있는 곳인데, 마귀는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든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인간의 육체에서 나온 귀신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이 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였던 누가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 질 적에 각 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눅4:40-41). 의사인 누가가 보니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를 하나같이 귀신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데, 마귀가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4:8-9)’고 합니다. 곧 이 땅이 음부요, 마귀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고로 이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이 땅을 떠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귀신이 믿지 않는 자의 사후의 영인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10:20)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지 않고 죽은 영이 귀신임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음부라 육체를 입지 않으면 뜨거워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음부에 간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어떻게든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인간의 육체에서 나온 귀신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입니다.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이 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였던 누가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 질 적에 각 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눅4:40-41). 의사인 누가가 보니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를 하나같이 귀신

그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고, 마침내 불멸의 명작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귀신은 전신이 사람인고로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가지고 있던 인격 그대로의 모습으로 역사하고, 자기 죽은 모습 그대로 죽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자살했으면 자살하게 만들고,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으면 사고 나게 합니다. 암으로 죽은 귀신은 암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 것을 알기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권능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마28:18). 그런데 성령을 받

면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였던 것처럼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추방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아무리 거미줄을 없애면 무엇하랴
거미를 없애야 거미줄이 없어진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은 빛과 같아 어두움의 주관자,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는 남녀노소, 유·무식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든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 시간 기도한 만큼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 시간 기도한 사람에게는 또 그 만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원의 가치와 만원의 가치가 다르듯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제공하는 원인이 크다면 기도 또한 깊이 들어가야만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마귀에게 먹히고 난 후, 마귀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우리에게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마12:4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분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특권입니다(막1:27).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마12:28). 할렐루야!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간다**

그만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겨보려고 하다가 이를 아신 하나님이 루시엘과 함께 반역을 꾀한 삼분의 일의 천사를 영적 감옥이라는 흑암, 즉 음부에 가두어버립니다(사14:12-14).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한 자로 사단(루시퍼)이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루시엘과 함께 반란에 동참하였다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들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일곱 귀신을 비롯해 군대 귀신 등 많은 귀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귀가 먹고 범어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눈이 멀고 꼬부라졌다는 것으로 볼 때 육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두려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범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참 재미있고 서글픈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 그 당시 최고의 존망을 받던 지파임에 틀림없다. 애굽 생활 중에 가장 높은 자리, 은혜 베푸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땅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가문이었으니 말이다.

아마도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니 이들 에브라임지파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듯하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존경받고 머리가 뿔이 마땅하다고.

사사기 7장 24절 ~ 8장 3절에 에브라임 지파사람들은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을 도와 끝물에 패잔병들을 죽이며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나무뿔을 지고 있다가 동편 땅으로 도망치는 적을 쳐 죽인 것이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느닷없이 패잔병들을 쫓느라 정신이 없는 기드온에게 나와 시비를 건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갈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드온은 운운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의 대답이 그들의 시비를 그치게 하고 돌아가게 했는데, 기드온의 답인즉 이랬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맛을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너희 공이 훨씬 크다. 우리가 전쟁은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너희가 지었으니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

고 추켜 세워준 것이다.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으쓱해서 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사사 일대 시대에 터졌다. 한번 재미를 본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일대 시대에도 동일한 일을 저지른다. 암몬군대와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시비를 건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무시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이때 입다는 서원한대로 자기 외동딸을 반제물로 드리는 큰 아픔을 겪고 난 뒤였다. 심장이 말이 아닌 상태인 입다를 건드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천불이 끓고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댔다. 그리고 입다는 기드온과는 출생배경도 성장과정도 다른 사람이다. 그는 철의 자녀로 태어나 모진 멸시를 받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났다. 한을 품은 그는 비류들을 모아 마치 마적단처럼 부하들을 거느렸던 사람이었다. 잘못 건드린 것이다.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이다.

사사기 12장에 화가 치민 입다는 에브라임 군대를 쳐서 사정없이 다 죽였다. 뿐만 아니라 도망자들까지 추적하여 요단강 나무를 지키고, 통과하는 자들마다 ‘심블렛이라 해보라’ 하여 ‘심블렛’이라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간주하고 모두 쳐 죽였다. 이날 무려 42,000명이 죽었다. 에브라임 성인남자 거의 대부

분이 죽었다고 볼 수 있다. 민수기 1장에 광야생활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에브라임 성인남자의 수가 40,500이었고, 민수기 26장에 40년 광야생활 후 다시 인구조사 했을 때, 그들은 32,500명이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입다 당시까지 약 300여년이 흐르는 동안 각 지파마다 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에브라임의 장정 42,00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서 치명타였을 것이다.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고 더 겸손했어야 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우쭐하여 거들먹거려다가 만날 일을 만난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마귀의 뒤를 따르는 길이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다름도 온다. 옛 어른들이 “무엇이든지 자랑하지 마라. 자랑 끝에 불붙는다.”고 하셨다. 돈 자랑하면 그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고, 자식자랑하면 그 자식 때문에, 명예, 권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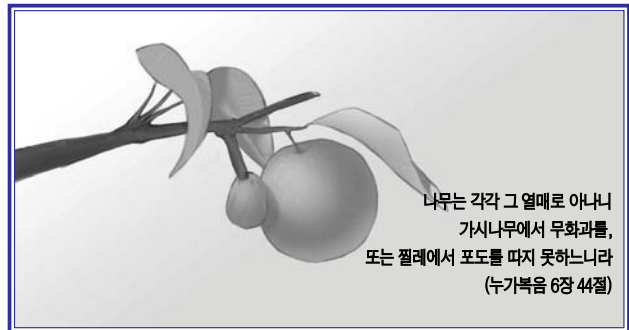
알삼람이 자랑하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임 당한 것처럼, 사슴이 자랑스러워하던 뿔이 덩굴에 걸려 맹수의 밥이 되듯이, 느부갓네살 왕도 사울왕도 모두 이 빛에 걸린 것이다. 교만하여 거만 뿔고, 사람 무시하고, 안하무인인 사람은 곧 망할 사람이다. 그런 자의 곁에 머무르면 함께 망한다.

수년전에 어떤 정당이 자기를 숫자만 믿고 거들먹거리며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역풍을 맞고, 지금 대통령이 당시 대표로 나와 손이 발이 되도록 땀과 다니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즉 (스스로)선출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29:23).

이시대 목사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질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44절)

지혜로운 자만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지난 4월 10일 필리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옛 뱀이요 사단인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본론 말씀(마10:16)을 통해 ‘뱀 같이 지혜로우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뱀의 속성이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뱀은 깨끗하다. 우리도 어딜 가든 깨끗하고 진실 되어야 한다.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다(마5:8). 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했다(딤후2:20-21). 대가업들이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힘도 바로 투명성에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깨끗해야 함은 물론이다. 깨끗한 자는 어디에서든 분명하고 당당하다.

둘째, 뱀은 아름답다. 사람 역시 아름답게 꾸미는 자가 더 대우를 받는다.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옷차림과 꾸밈새는 많은 이들의 눈에 띄게 만들어 내가 상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깨끗하고 아름답게 스스로

를 단장하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해박한 지식을 쌓기를 바란다. 끊임 없이 지식을 함양하여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영적인 에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뱀은 소리 없이 다닌다. 조용히 있다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독을 내뿜어 상대를 제압하곤 한다. 여러분도 성공하기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고 정보를 얻은 다음 움직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 년에 한 번 허물을 벗는 뱀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 발전해야 한다. 영원한 천국 역시 죽는 날까지 깨어 노력해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뱀은 부드럽다. 뼈가 있으나 뼈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다(마5:5). 분을 내는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고도 했다(잠22:24). 젊은이들이여, 신뢰는 자기 스스로 쌓는 것이다. 조금만 건드려도 콜라처럼 확 솟구치는 사람은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설령 내가 상처를 입을지라도 웃을 때, 비로소 사람들

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과 문물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사는 만큼 끊임 없이 연구,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목적이 없는 훈련은 없으니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능력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잠24:5)고 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성공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들이여, 세상의 벽이 높고 두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롭게 무장하자.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수화통역 예배안내

매주 주일 3부 & 4부 예배
금요일집회
문의: 주축복 전도사
010-3256-0288



귀를 기울이세요

미국 시카고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아류가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진인한 부족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곳에 도착한 지 다섯 달 즈음, 그들은 그 해변에서 창과 화살에 찔려 무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애도를 표하면서 기사의 타이틀을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로 내보냈습니다. 전례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선교도 못해보고 개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당시 짐의 아내네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일 겁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자기 남편과 가족을 죽인 그 아류가 부족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고, 결국 아류가 부족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삶보다는 나뭇가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세 살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신재식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봄 같은 사람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싫어하는 계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겨울이 그렇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귀가 당장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도 싫고, 해가 짧아져서 저녁 6시 밖에 안됐는데 한밤중처럼 캄캄한 것도 싫습니다. 반대로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지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나고 끈적거리고, 파리며 모기며 자꾸 달라붙는 게 짜증이 난다고요. 그렇다면, 봄은 어떠세요?

살면서 여름이나 겨울, 가끔가다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은 봤어도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모두가 사랑해 마지않는 계절,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곧 죽을 것같이 앙상했던 나무가 '왜 이래 나 아직 팔팔해'라고 말하듯 가지가 지마다 어린잎을 피어내고, 우중충하고 지밋했던 도시가 초록, 노랑, 분홍으로 알록달록 풍성해지고 있지요. 가장 기분 좋은 온도의 햇살이 공기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봄이 부

지런히 만들어낸 결과이지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공중에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쉼 없이 생명을 만드는 작업을 묵묵히 해낸 결과이지요.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이지요. 제가 새해를 진짜로 느낄 때는 1월 1일이 아니라 봄이 왔을 때입니다. 춥고 힘들었던 작년을 싹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짜게 되니까요. 이불을 박차고 봄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고 싶어지지요. 자신을 멋지게 꾸며주고도 싶어집니다. 늦게까지 잠만 자고 있거나,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거나, 작년처럼 보내기가 아까워집니다. 봄이 주는 에너지 덕분에. 가만 보면 사람도 봄과 닮은 사람이 있지요.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 삭막한 분위기를 포근하게 만드는 사람. 잘난 척 하지 않으면서 제 할일 묵묵히 해내는 사람. 배울 게 많고 닳고 싶어지는 사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에너지가 넘치고 얼굴에 그늘이 하나 없어 아마도 어려운 일을 한번이라도 안 겪어 봤겠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흑독한 겨울이 있었더라고요. 다만 그 모든 걸 이겨낸 후, 자신만의 봄을 피워낸 것 이더라고요. 겨울이 흑독할수록 봄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렇다는 걸 그 사람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날 버린 거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얼굴을 잔뜩 구기고, 찬 바람 땡~ 불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려 합니다. 봄이니까요. 봄처럼 부지런히 다시 노력해보려 합니다. 좋은 말을 뿌리고, 좋은 생각을 뿌리고, 좋은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도 봄처럼 좋은 사람. 나와 당신, 우리 크리스천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미국의 작가 웰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작품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가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어릴 때는 나무 주위에서 즐겁게 놀았지만 나이가 들자 나무 곁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찾아 온 소년이 괴로워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돈은 없고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

고는 오랫동안 소식도 없다가 청년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결혼 때문에 고심하는 그에게 나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돌아가는 소년의 모습을 보며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중년이 되어 나타난 소년은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온몸을 베어가게 하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지만 소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소년은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지만 잘려나간 나무 밑동에 앉아 쉬어라."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은 이기적이며 사랑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고결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10:9).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화영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꿈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은...

:: Edu Section ::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파파포티'는 꿈을 가진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멋있게 그려냈다. 제능은 타고났으나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주먹세계에 휘어든 장초는 비록 현실은 '파파포티'의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르는 건달이지만 성악가가 되고픈 꿈만은 잊은 적 없는 아이다. 이런 장초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은 영화를 보는 내내 훈훈한 자극과 감동으로 다가온다.

자녀들의 꿈은 성장과 함께 시시때때로 달라진다. 그럼에도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피아노 전공을 하겠다는 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 하루에 5~7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지만, 정작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예고 출신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원하는 대학교는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

인 답보다 작은 불씨와도 같은 희망과 용기였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더욱 많은 학습 준비와 노력을 하다보면, 오히려 생각과 다른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격려를 해주었다.

꿈은 꿈일 때 자녀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펴준다.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을 냉정히 돌아볼 경우, 꿈은 오히려 자녀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열악한 현실과 부정적인 전망으로 자녀의 꿈을 깨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따뜻한 격려와 위트가 필요하다. 꿈을 꾸다보면 현실속의 모습과 미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긍정적인 비교가 아니라면 비교는 오히려 꿈을 앗아가는 독소가 된다.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과 관심과 인내와 열정으로 자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모의 정성이 동반되어야 자녀는

꿈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너 같은 것이 하기는 뭘 해!"라는 핀잔이나 일삼는 부모가 있다면, 진실로 반성하고 다시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자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화는 미래의 자녀를 위한 보이지 않는 식량이고 에너지임을 명심하자. 오늘도 우리의 자녀는 꿈을 그리며 달려가다 현실과의 고된 싸움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수 있다. 지친 자녀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혼자서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자녀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자녀와 함께 꿈을 그려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순아

lovelyactor@naver.com

Q&A

Q: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 구원을 위하여 40일간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자정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12시간 금식을 하며 새벽과 저녁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작정기간 일주일을 넘겨두고 회사에 출근해서 무심결에 음료수 한 모금을 마셔버렸습니다. 작정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A: 예수님을 영접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하고 계신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소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지금의 위급한 상황과 절박한 심정을 보여드리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신중히 상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사8:23, 사58:6-9).

그런데 금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온전히 기도하여 남편을 구원하고자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작정기도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의 실수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욱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가정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